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6월)

일시	2019. 6. 27. 목. 오후 5시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구제길, 김옥열,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나건, 이묘숙, 이철우, 임철원,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14명)	
	회사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박수인 취재부장,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단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위원회 개시에 앞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먼저 하겠다. 위원장 추천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최선희 위원 : -제가 추천하겠다. 최영태 교수님을 추천한다.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분이시기에 최영태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시면 어떨까 한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최영태 교수님 추천을 하셨다. 다른 분들 추천이 더 있는가.
- 구제길 위원 : -평소 여러 단체에서 많이 뽑기도 했는데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님을 추천한다.
- 김형순 위원 : -저는 양해를 구하고 최영태 교수님이 맡아주시면 좋겠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김형순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직을 사양하셨다. 또 다른 추천이 있으신가. 없으시면 최영태 위원님의 선임에 대해 의견을 묻겠다.
- 위원 일동 : -최영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에 찬성한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만장일치로 위원장을 선임해주셨다. 다음은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다.
- 류한호 위원 : -여성분이 부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한다.
- 이나건 위원 : -위원장이 첫 임기이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임을 하시는 분이 맡으셨으면 하는데 최선희 위원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 이묘숙 위원 : -위원회 진행을 원활히 잘 해주실 것 같다. 최선희 위원님에 찬성한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다른 후보 추천 있으신가. 없으면 최선희 위원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
- 위원 일동 : -찬성한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최선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임해주셨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다. 15분 중 14명이 참석하셨고 과반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영태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진행을 맡아주시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시청자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이고 책임 무겁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가 꿈이었는데 하다 보니 학교에 남게 되었고 학교 끝날 무렵 시청자 위원장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네 분이 연임해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많은 가르침 주시리라 생각한다. 각계 분야에서 활동을 활

발히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분들과 만나는 것도 기쁘고,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방송이 차지하는 영향력,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 방송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로 역사가 있는 MBC에서 시청자위원을 하게 돼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방송까지 한다고 하니 저희 책임이 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송일준 사장 : -새로 광주MBC 시청자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힘든 길이 열렸다는 차원에서 심심한 위로를 동시에 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시청자위원회다. 좋은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역사회에,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다. 좋은 방송을 해야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다. 광주MBC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좋은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고 싶은 얘기 신랄하게 기탄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어렵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질책,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임기 동안 좋은 연인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영태 위원장 : -시청자위원회를 방송한다는 것은 광주MBC를 어떻게든지 높여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부흥해서 실천해야겠다.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는데 시청자위원회는 언론의 목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 곽관주 편성제작국장 : -먼저 수상소식이다. 5.18다큐 <임을 위한 하모니>가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광주정신 단편 다큐멘터리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6월달에는 <문화콘서트 난장> 나주 제작스튜디오 협약식을 가졌다. 공사를 해서 10월 말, 11월부터는 나주에서 제작한다. 5월달에 MAY PEACE 페스티벌 공연을 했는데 녹화를 해서 전국 방송과 로컬방송을 했다. 7월달에는 광주피나세계수영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11일에는 전야제 방송을 우리가 하고, 12일에는 개막식 방송이 예정돼 있다. 7월 15일부터 부분개편 예정돼 있는데 오후 5시 뉴스가 신설되고 7시대 드라마가 폐지된다. 아침 드라마가 부활될 예정이다.
- 박수인 취재부장 : -수영대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30일 됐을 때 집중해서 보도를 했다. 가장 관심사는 광주에 도움이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한다. 흥행의 관건인 북한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최근에 남북이 관계가 조금씩 좋아진 상황에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다. 또래 집단폭행에서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런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상습적인 괴롭힘에 의한 범죄여서 살인죄로 기소가 돼 있다. 저희도 너무 자극적이게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쁜 범죄여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다. 경찰들이 수감도 없이 출동해서 주민들이 없으면 검거하지 못할 뻔 했던 상황도 보도를 했고. 홍콩에 범죄 인도조약 시위가 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는데 개사를 하고 단상에 올랐던 가수를 사건

기자가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독 화상 인터뷰를 했다. 손해원 의원 기소 관련해서 너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다. 지역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보도를 열심히 했다. 현재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슈다. 작년에 저희가 발굴해서 단독보도 해 알려진 사건이다. 저희도 후속보도를 했다. 중학생 딸을 부모가 죽이고 시체를 저수지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 친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 사회에서 기벌 곳이 없었던 상황을 취재해서 단독보도를 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돼 상을 받고 내려왔다. <김낙곤의 시사분석>에서 계속 정치현안 등을 심층 분석했다. 다음 달에는 세계수영대회가 있으니 보도를 집중해서 하려고 한다. 하반기에 광주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착공도 있다. 모처럼 SOC 사업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열심히 보도하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도 기획뉴스, 기획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

○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 -7월달 공익방송사업이 두 개가 있다. 2019 정울성동요경연대회가 있다. 8개 초등학교 합창단 경연이 있다. 7월 19일 공개홀에서 열린다. 수상팀은 8월 9일~16일 6박7일 일정으로 중국 성도국제합창제에 참가한다. 제5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광주 소재 고등학교 1학년 67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스피치와 독서교육, 견학 등이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7월 23일~25일 2박 3일 파주출판도시에 진행된다.

○ 최영태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들겠다.

○ 김옥열 위원 : -저는 최근에 2주 정도 <뉴스투데이>를 집중적으로 봤다. 보고 나서 몇 가지 느낀 점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보면서 느낀 게 독자적으로 발굴한 뉴스가 부족하지 않는가 느낌이다. 저녁뉴스와 겹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아침뉴스가 대체적으로는 관공서 보도자료 나온 것, 또는 알려진, 어떤 발생했던 사건 중심에 나열한 것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 ~했다 하는 행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뉴스가 하루에 한두 개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는 이슈인투데이 코너가 있는데 매일 돌아가서면서 한 사람씩을 스튜디오에 불러서 5분여 정도 대화를 나눈다. 중요하고 코너도 앞부분에 있다.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그분들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연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귀한 시간에 해야될 것인가, 그런 사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너를 채우기 위한 또는 제작비 절감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번 주에 문화행사를 소개하는데 굳이 외부인사를 불러서 할 사항인지, 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리포트로 해도 되거나 내부적으로 처리해도 될 문제다. 지역의 이슈나 당장의 현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뉴스 당사자를 불러서 따지거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포맷으로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 당장 조선대 같은 경우 긴박한 상황이다. 그런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안한 지적이긴 한데, 나름대로 편성하신 분들은 교육지적으로 하는 건 같다. 아침뉴스가 두세 개 꼭지 아이템을 하고 바로 날씨가 나온다. 두세 개 하고서 이슈인투데이가 나오고 또 두세 개 하고서 문화 내지는 프로야구가 나온다. 시청자를 사로잡아 보기 위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산만하다는 느낌이 든다. 때로는 날씨 뒤에 중요한 뉴스가 가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하면 앞부분에 중요한 뉴스 나오고 뒤로 가면서 덜 중요한 뉴스도 나오고 하는 게 시청자들이 익숙할 테다. 날씨 같은 경우 태풍이 온다든지 중요한 거 아니면 순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했다.

○ 류한호 위원 : -지난 5월 20일 조금 지나서 서유진 선생이라고 하는 5.18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에 관한 보도가 많이 눈에 띄었다. 이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마침 그때 취재진이 취재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일정을 급히 바꿔서 장례식을 취재했다. 현지에서 영상을 보내서 방송하고 5.18요역에 안장식 하는데 거기에도 휴일인데 가서 방송을 했다. 마침 미국에 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고 하니 잠깐 바뀌서 갔다 오고 하는 거라고 쉽게 할 수 있다. 일정을 바꿔서 특종을 한 것은 지역사회에 이런 방식으로 기여하는 분들을 기리는 역할도 한 것이다. 뉴스제작자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팀에서 결정했을 텐데 이런 식의 결정은 제작진의 책임이 돋보였다. 뉴스 보도 가치 기준 설정에서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뉴스 판단, 가치 판단도 굉장히 돋보였다. 보도에서 지역방송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매우 기동력이 있게 대처한 것도 좋았다. 지역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MBC는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많이 해왔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보도 접근하길 바란다.

-수영대회는 지역사회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뭔가 하나 시작하면 부족한 게 드러난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거울상아서 이번에는 실수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매일 수영대회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영역별로 체크를 하자. 수영대회 조직위나 광주시를 긴장시키고 성공적인 수영대회가 되도록 자극하는 것도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이묘숙 위원 : -김옥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보통 아침뉴스가 7시 15분 정도 시작된다. 헤드라인 네다섯 꼭지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차례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날씨나 이런 것은 출연하면 알게 되는데 출연진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타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날씨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아니면 간단하게 전달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디오 뉴스 같은 경우 <황동현의 시선집중> 끝나고 나서 넘어갈 때 <라디오칼럼> 다음에 라디오 뉴스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근래에 들어서 뉴스 시작하는 시보에 있어서 1, 2초 정도 끊김 현상이 있거나 심지어 뉴스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그널이 두 번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송사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뉴스 집중보다는 듣는 사람이 긴장한다. <투데이광주> 시사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침에 진행했던 뉴스 내용이 그대로 오프닝으로 시작한다. 전략적으로 뉴스를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미로 뉴스의 멘트를 그대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다. 요 근래 한 달 정도 라디오 방송 중에 멘트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시그널이 나오는 현상이 자주 나온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MBC가 수영대회 메인 방송사인데 20일 남짓 남아 있는데도 붐업이 됐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 마스터스 수영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랄지 다양한 시민들의 현상을 재미있게 취재한다거나 뉴스로 만들어본다거나 자연스럽게 일상의 뉴스를 전달하면서 지역사회에 붐업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제안을

드려본다.

- 객관주 편성제작국장 : -방송사고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엔지니어가 교체됐는데 교체 시기에 일어난 시행착오다.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다.
- 이요숙 위원 : -어제도 뉴스를 하는데 시그널이 또 나와서 깜짝 놀랐다.
- 박수인 취재부장 : -시그널이 끝나는 타이틀곡과 시작하는 타이틀곡이 있다. 처음에 들었던 것은 서울 뉴스가 끝나고 나서 중간에 CM 처리하고 뉴스가 들어간다. 그 사이가 불과 길면 1분, 짧으면 30~40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그널이 두 번 나간다고 한 거 같다. 전날 뉴스가 그 다음 날 또 나갔다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 이요숙 위원 : -어제 아침에 봤던 뉴스가 오늘 아침에 같은 내용으로 멘트가 같지는 않지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방금 전에 언급을 하셔서 저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다.
- 박수인 취재부장 : -같은 뉴스가 이를 연속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어떤 뉴스인가. 혹시 전날 나간 뉴스의 속보형식이었나.
- 이요숙 위원 : -속보형식은 아니고 거의 같은 톤이었다. 똑같은 멘트는 <투데이광주> 때 나와서 이게 원고를 가져간 것인가, 뉴스를 리마인드 한 것인가 싶었다.
- 박미자 위원 : -<뉴스투데이> 출근 시간에 나오는 방송이다 보니 위원들 눈에 많이 잡히는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시간 맞춰 보기가 힘들다. <뉴스투데이>는 항상 아침마다 보인다. 뉴스라는 게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새로운 소식이 뭔지 기대감을 갖고 본다. 전날 중앙방송에 있는 게 된다면, 김옥열 위원님 이야기 했던 부분과 중복이 된다. 이슈인투데이가 그 부분이 이왕이면 리포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정보 소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사회 큰 이슈가 많다. 정말 그 담당자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부분, 그런 인물을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들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뉴스투데이> 안에 이슈인 투데이 코너는 굉장히 중요한 코너라고 생각한다. 지역단체, 사회, 소식이 됐든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정보들은 이 코너를 통해 담당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 억양이나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처음 모니터를 하다 보니 가족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자주 어긋나는 안 좋은 시선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잘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 힘이 될 수 있는 모니터도 준비해보겠다.
- 이나건 위원 : -최근 이용섭 시장 민선 7기 대한 평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됐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선 7기가 청년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나왔다고 보도됐다. 제가 살펴보니 지난 민선 6기에서는 오히려 또 2년 전쯤 MBC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열매 맺기 어려운 청년정책이 많았다는 반대적인 평가가 나왔다. 6기와 7기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청년문제가 분명히 시급한 문제이긴 하다. 다음 세대에 대한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낙곤의 시사본색> 같은 프로그램에서 면밀하게 이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상 청년정책이라는 게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지난 민선 6기도 7기는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청년그룹들 사이에서는 청년위원이라든지 활동이 소수의 전유물 같은

그런 평가도 청년들 그룹에서는 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다뤄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청년정책이라는 게 지난 97년 체제 IMF 이후 화두가 된 내용이다. 고용의 질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길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한전공대 예타 관련 보도가 나왔다. 예타 문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타에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다만 사실상 언론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예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한번 살펴서 볼 필요가 있다. 거의 이제 지역방송사에서는 예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찾아볼 수 없다. 엠비시에는 한 번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다.

- 김형순 위원 : -화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소방차가 가는데 좁은 길에서 광주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뉴스라는 게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행동을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하는 것도 좋은 효과다. 좋은 뉴스 잘 봤다.
- 구제길 위원 :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이 광주 소식이나 축제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 좋았다. 그런데 너무 리포터 위주로 돌아가는 게 아쉬웠다. 시민들 참여행사도 많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 인터뷰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면 더 생생한 현장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반려견 수영대회 취재를 했는데 광주에도 애견인들이 많고 참여자들도 많은데 너무 애완견 위주로만 촬영하고 있고 리포터 혼자 얘기해 생동감이 적었다고 느꼈다. 시민들의 반응을 담으면 좀 더 생동감 있고 좋을 것이다.
- 최선희 위원 : -광주MBC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낙곤의 시사본색> 6월 9일자 방영분이다. 이슈저격 코너에 5.18 진실과 미국 기밀문서에 관한 내용이다. 천정배 의원 나와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미국에게 기밀문서가 있느냐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김낙곤 진행자가 로마교황청을 갈 일이 있었을 때에 관한 내용으로 엔딩을 하는데 이색적이었다. 교황청에도 5.18항쟁 기밀문서가 보관이 돼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에 이런 기밀문서들이 있는데 아직도 은폐하는 세력이랄지 6월달이지만 팔 걸 파고 알릴 것은 알리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그런 기조에 관한 것은 역시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잘 담고 있다.
-꼭지가 두 개인데 시사탐구 코너는 인공지능, 광주미래산업 과연 될까 이런 내용이었다. 지난달에 시청자위원회 하면서 패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선별해서 샘플링으로 환상의 복합조로 임혁 소장과 공덕주 연구원이 패널구성으로는 엑셀런트 했다는 점수를 주고 싶다. 인공지능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4천억 정도 예타를 통과해서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는데 임혁 소장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같이 출연했던 공덕주 박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받아넘겨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잘 맞춰서 엔딩을 했다. 패널도 그렇고 방송은 편집이 있고 생방이 있는데 생방은 어긋나고 실수한 것들 묘미가 있긴 하다. 편집방송은 충분히 콘텐츠를 해서 손조롭고 좋은 방송의 모양을 갖춰가는 게 바람직하다. 패널선정이 아주 잘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에 정중제 부시장이 했던 안전도시 광주의 꿈은 이뤄진다는 꼭지가 있었다. 광주가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했다. 짧은 칼럼이지만 교통사고가 117명에서 18년도 들어서 75명으로 35.9%나 감소해서 그 지수만으로 가지고도 자랑할 만한 거리다. 이런 안전에 관한 MBC의 역할 캠페인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과잉공급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규제하는 게 흘러와서 광주에서 넘쳐나는 것 같다. 사실 수요보다 공급 과잉이 되면 대구처럼 빠져나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길지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 조숙경 위원 : -광주MBC 나누시와 공동으로 문화공간 리노베이션 사업을 한다고 엠오유 체결했다. 고무적이고 선진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지 <난장> 공연장으로 리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나누가 좀 역사성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로 스토리텔링해서 나누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로 라디오를 듣는데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가 있고 정치와 시사를 다루는 <활동현의 시선집중>, 저녁 6시에 하는데 <투데이광주> 있는데 <투데이광주>가 정체성이 약간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서서 이요숙 위원도 말씀해주셨는데 오프닝 멘트가 뉴스를 그대로 하고 있다고 코멘트도 했다. 제가 생각하기엔 <투데이광주>는 시사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시사적이지 않다. 사실은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아 이런 일이 있구나 감동스러운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라디오에선 잘 안 다루고 있으니까 <투데이광주>가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제안이다. <광주MBC 라디오칼럼>은 정중제 부시장도 칼럼니스트인데, 칼럼니스트들이 대거 보강이 됐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와 청취자들에게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한다.

○ 김요수 위원 : -요즘은 TV 없는 사람이 많다. TV보다도 모바일로 방송을 접하고 정보도 모바일로 얻는다. 지난 토요일에 이틀간 반려견 수영대회 재미있게 봤다.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 방송사고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고 쌍방향 소통이 대단히 좋게 느껴졌다. 정규프로그램도 좋지만 결다리 프로그램, 비정규 프로그램이 이미 대세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 입수 수단이 정규프로그램에서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려견 수영대회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광고가 없었다. 앞으로는 방송수익에 있어서도 광고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20~30초짜리 완성형 광고가 대세였다면 5, 10초짜리 몰입형 광고 시대가 아닌가 싶다. 쉽게 볼 수 있는 게 프로야구 중계를 볼 때 나오기도 한다. 광고의 형태도 전국형, 설명형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 알림형, 쉽게 말해 옛날에는 제품광고가 대세를 이루었다면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했을 때 그 지역의 식당 광고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광고 형태의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어설픈 광고도 효과가 많은 경우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부분의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것에 따른 전문적인 지역방송이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방송 트렌드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나이와 성별을 떠나 새

로운 형태의 방송형태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부문에 이런 부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김형순 위원 : -평소 가지고 있었던 광주MBC가 해줬으면 하는 부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2030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보조금을 여기저기 지급해서 건설공사들이 일어나고 사업 신청이 되고 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송전선로의 제약문제, 인허가 문제의 제약, 각종 외국 투자펀드회사들이 들어와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고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누군가는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현실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결과제들이 뭘 좀 만들어줘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

-또 하나는 광주와 전남이 호남의 한 몸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갈등요인을 우리가 보고 있다. 단순히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뉴스나 어떤 사실 보도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가는 것이 광주와 전남이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지. 특히 광주는 호남의 인력을 배출하는 16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젊은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광주에 살았던 사람이 전남에 정착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 광주는 광주대로의 역할 전남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천혜의 관광자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들을 유도하고 제안하고 시민들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서 시리즈가 나간다면 좋은 결론을 이루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본다.

-마지막으로 나누 <난장> 공연 11월쯤 시청자위원들이 첫 공연을 같이 가서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홈페이지 너무 어둡다. 어두우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어두워져 시작하니 좋지 않은 느낌인데 밝은 톤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홈페이지 내부에 이동하는데 합리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관심 있는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도대체 우리 홈페이지 뭐 있는지 체크해서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니건 위원 : -반려견 수영대회 재미있게 봤다. 스마트미디어팀에서 따로 유튜브 채널에 따로 업로드 했다. 제가 오기 전에 지역방송 3사의 스마트미디어팀들의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거의 비슷하다. 맛집이나 트로트 요즘은 다 송가인을 얘기하고 있고 뉴스 짜깁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MBC에서 반려견 수영대회 올렸는데 재미있고 좋았다. 다만 조금 욕심이 났던 것은 좀 더 젊은 패널들이 나와서 중계한다든지 리액션을 예능화 해서 한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려고 봤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을 보면 레이아웃이 깨져 있다. 비밀번호 체크하는 부분,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 유효성 검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레이아웃이 깨져서 다르게 나왔다. 기능상의 하자는 아니지만 레이아웃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회원사진을 업로드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업로드 버튼이 따로 레이아웃이 나가 있다. 간단한 문제인데 깨져 있는 부분이 아쉬웠다. 기능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것인데 사실 업로드 버튼도 필요가 없다. 찾아보기에서 홈페이지에서 파일 선택하면 한 번에 포스트 형태로 서버상으로 전달이 된다. 이 버튼도 필요 없는 것인데 레이아웃도 깨

졌다. 이 부분을 점검을 말씀드린다. 기능상 문제였던 것은 아예 가입이 안 됐다. 가입을 누르면 오류 화면이 뜨는데 보통 오류번호가 따로 뜨는데 오류번호도 안 뜨고 가입이 안 됐다. 보통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등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해봐도 안 됐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검색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검색화면이 나오면 문화방송 타이틀이 나오고 메뉴들이 자동으로 크롤링 돼서 올라간다. 보통은 회사에 대한 소개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홈페이지상에서 미리 기입하는 부분이 있다. SEO 데이터 입력을 제대로 안한 것이다. 네이버에서 기능을 제공한다. SEO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걸 돌려봤는데 역시나 사이트 설명 부분이 안돼 있는 것이다. 엠비시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 네이버에도 자동 반영해서 올려준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추가해야겠다. 이게 안돼 있으면 홈페이지 내에 있는 다른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펴볼 내용이다. 부가적인 내용인데 굳이 열어보는 사람은 없는데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HTML을 볼 수 있는 창을 봤는데 보통은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등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라이선스 키를 발행해준다. 이 키를 밖으로 노출이 된다고 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개발자들이 보안상 파일화해서 숨겨준다. 볼 수 없게 따로 빼놓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런 부분은 잡아 볼 필요가 있겠다.

○ 이철우 위원 :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최선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조금 지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문제를 두 사람이 나와서 재밌게 주고받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중간에 관련 있는 영상을 넣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같은 기관의 같은 연구자 입장인 두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토론자도 다양하게 섞어서 지자체 담당자 또는 일반산업체와 토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과연 지역방송의 정체성이 뭔가 생각해봤다. 가장 중요한 건 모니터가 되니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지역방송의 가장 중요한 건 지역성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성을 지역 속으로 그대로 물어버리면 안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지역을 통한 세계화 즉,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주MBC가 로컬의 특성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뿔어 나갈 수 있는 특성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니터의 입장인지 아니면 모니터하면서의 입장인지 회사 전체의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지역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걸 간과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해본다.

○ 임철원 위원 :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광주공항 이전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 후 상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각 시도가 상생협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자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공동 노력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MBC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무엇 때문에 상생발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분위기로 가주는 게 시민에 대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를 문제화 해주는 게 좋겠다.

○ 김태진 위원 : -광주MBC 하면 <생방송 빛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중에서도 '빛

날 인' 코너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지역사회에서 광주지역이 살아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볼 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상매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특히 인프라와 자본이 부족한 청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영상매체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빛날 인' 느낌의 코너들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광주MBC 하면 광주의 인물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떠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 최영태 위원장 :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구제길 위원의 생방송 <오매 전라도> 반려견 수영대회에 대한 부분에 공감하고 제작을 할 때 입체적으로 세련되게 제작하도록 하고, 조속경 위원 말씀하신 <난장> 11월에 나주에서 론칭하는데 라디오는 8월초에 양림동 오픈스튜디오 공사 중이다. 그때 맞춰서 라디오 개편을 위해 강도 높은 개편을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 청년 관련 젊은이 참여 방송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들을 방송에 참여시키고자 산학협력프로젝트를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4개 대학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MC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소통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가 갖지 못한 외부자원들을 동원해 좀 더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박수인 취재부장 : -김옥열, 박미자 위원님께서 <뉴스투데이>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다. 저희 가장 큰 고민이 그것이다. <뉴스투데이>를 어떻게 만들까. <데스크>에 나간 뉴스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뉴스를 해보고자 한 게 이슈인투데이다. 신문으로 하면 문화, 사회, 행정, 경제면 이슈들이다. 이나건 위원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 청년정책이 너무너무 어렵다. 청년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인가보다 했는데 청년들이 왜 우리에게 돈 벌라고 하느냐. 돈 버는 기계냐. 12년 동안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제는 돈 벌라고 하느냐. 한때는 청년토론 청년뉴스 포기해버렸다. 그래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시도상생에 대한 말씀은 안 그래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 너무 답이 없다. 가장 문제가 혁신도시다. 서로 경쟁하게 생겨 큰일이다. 저희도 고민이 많다. <시사본색>은 출연자 선정에 관해서 같은 학교 두 분이 나온 것은 맞다. 사실은 출연자를 선정하다가 한 분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못 나왔다. 패널리스트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전달력,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이 사람이 흥얼이 있는지 봐야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다. 항상 눈높이에 맞는 출연자를 섭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병규 스마트미디어사업담당장 : -반려견 수영축제를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미디어사업단에서 라이브로 토, 일요일 이틀간 진행을 했다. 광주MBC가 가지고 있는 방송을 베이스로 한 콘텐츠 외에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요수 위원 말씀 주신 광고문제, 모바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광고를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아도 적은 규모, 지역 밀착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벤트 콘텐츠 외에 정규 콘텐츠를 실을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조사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나건 위원 말씀하신 예능적인 시도, 현장을 같이 중계하면서, 사실은 이게 방송프로그램처럼 현장을

중계차를 동원하고 스태프를 동원해서 할 만큼 투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콘텐츠 자체가 큰 수익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다. 광주MBC만의 콘텐츠로 가공할 때에 차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꾸준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 송일준 사장 : -홈페이지 문제는 사실 작년에 문제가 많았는데, 돈을 많이 들어서 개편한 것이다. 이건 광주MBC의 문제다.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해 속속들이 업체에 그때그때 요구해야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거 같아 답답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분발해야 한다. 이나건 위원을 모셔서라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들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문제이지 않느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들어서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지 의아스럽다. 그 다음에 <난장> 프로그램을 녹화할 나주정미소는 일제강점기부터 나주평야의 쌀을 정미하던 곳이다. 원래는 1,500~1,600평 정도 되는 정미소였는데 그 가운데로 같이 나서 한쪽은 1,000평, 한쪽은 5~600평 정도로 나눠졌다. 그것이 기능을 상실한 후로 흉물처럼 나주 중심에 버려져 있었던 것을 나주시가 20억 정도를 들여 1,000평 정도를 매입했다. 제가 예를 들어 콘서트홀로 바꿔서 우리가 <난장>을 공개홀에서 녹화할 게 아니라 나주에서 녹화하게 되면 뮤지션들과 팬들이 나주를 찾게 될 것이고 나주의 도심재생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합의가 돼서 MOU를 맺었다. 광주MBC는 공영방송이면서 지역에는 지역공영방송이다. 그래서 지역공영방송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지역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의 계열사들이 서울에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비율이 85%이고 지역에서 만드는 게 15~17% 정도를 왔다갔다 한다. 콘텐츠에 돈을 투입하기 어려워서 지역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렵다고 지역성을 포기하고 서울 것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뉴스는 뉴스대로 하고, <오매 전라도?> 같은 정규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성과 보편성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 광주MBC가 작년과 올해 힘을 쏟고 있는 콘텐츠가 <핑크피쉬> 프로젝트다. 흥어를 주제로 해서 작년 3편 올해 7편 해서 총 10편을 만들고 있다. 전라도의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이고 흥어가 음식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지역성과 보편성을 겸비한 좋은 소재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 MBC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가을부터 편성해서 10편을 방송하게 될 것이고 영산포 흥어의 거리에서 흥어캐릭터 상품들을 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광주MBC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주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 최영태 위원장 : -질문, 답변 모두 감사드린다. 방송이 밝은 뉴스도 많이 보내줘야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지적해주시면 좋겠다. 광주, 전남 관련한 쟁점이 많은데 쟁점 관련해서 도시철도공론화 위원장 할 때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김인정, 김철원 기자가 나와서 서로 찬반쪽에서 신랄하게 하는 게 짧지만 몇 시간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들어왔다.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첫날인데 긴 시간 이렇게 회의를 했다. 감사드린다.